

일 대학 보건계열 학생의 소명의식, 일의 의미, 진로태도성숙도 및 대학생활적응

A Study on Calling, Working as Meaning, Career Attitude Maturity,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among Allied Health College students

우정희, 박민정*, 민지하*, 박희은*, 박아름*, 이혜민*
건양대학교 조교수, 건양대학교 학부생*

Woo chung-hee, Park min-jeong, Min ji-ha,
Park ah-reum, Lee hye-min, Park hie-eun
Konyang Univ.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소명의식, 일의 의미, 진로태도성숙도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D대학 보건계열 학생 261명을 대상으로 2014년 10월 4일부터 일주일간 편의추출하였다.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소명의식은 전공, 지난 학기 성적, 학과지원동기, 아르바이트 형태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일의 의미는 전공, 학과지원동기, 진로태도성숙도는 전공, 학과지원동기, 대학생활적응은 성별, 전공, 학년, 지난학기 성적, 학과지원동기, 가정형편, 아르바이트 형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주요 변수들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소명의식과 일의 의미, 대학생활적응, 일의 의미와 진로태도성숙도와 대학생활적응이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진로태도성숙도와 대학생활적응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청년실업률이 7.4%로 일반 실업률에 비해서도 두 배가 넘는 등 대학생 취업난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어진 상태이므로[1] 학생들이 대학 전공을 선택함에 있어 취업에 유리하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되는 실정이다. 일에 대해 제대로 고려해 보지 않은 채, 부모나 사회적 기준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거나 남들이 하는 진로 경로를 답습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진로 불만족, 취업 후 이직이나 실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2].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로란 자신만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자아개념을 상응하는 선택을 하고 이를 위해 자신의 능력과 인성을 발전시켜나가는 교육을 대학에서 연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직업선택의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및 독립성과 관련 있는 진로태도성숙도를 비롯해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강조되는 소명의식[3], 국내 대학생들의 진로요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 일의 의미[4]와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연구목적

2.1 대상자들의 소명의식, 일의 의미, 진로태도성숙도 및

대학생활적응수준을 파악한다.

2.2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명의식, 일의 의미, 진로태도성숙도 및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를 파악한다.

2.3 대상자들의 소명의식, 일의 의미, 진로태도성숙도, 대학생활적응과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의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D시 일 대학 보건계열 학생들이며 연구자가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편의추출에 의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3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263부를 회수하였으며 최종분석대상으로는 불성실한 자료 2부를 제외한 261부를 포함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WIN 21.0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명의식, 일의 의미, 진로태도성숙도, 대학생활적응 정도의 차이는 t-test, ANOVA를 구하고 사후분석은 Scheffe를 적용하였다. 주요 변수들 간의 관련성은 Pearson's correlation을 적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대상자의 소명의식 평균은 2.65점(±0.66), 일의 의미는 3.57점(±0.50), 진로태도성숙도는 3.23점(±0.34), 대

학생활적응수준은 3.10점(± 0.40)이었다. 이는 <표1>과 같다.

표 1. 대상자의 주요 변수 수준 (N=261)

변수	평균	표준편차
소명의식(4점 척도)	2.65	0.66
일의 의미(5점 척도)	3.57	0.50
진로태도성숙도(5점 척도)	3.23	0.34
대학생활적응(5점 척도)	3.10	0.40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명의식에서는 전공이 간호학과 혹은 의학과인 경우가 방사선학과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지난 학기 성적이 '상'이라고 답변한 대상자가 '하'인 대상자보다, 학과지원 동기가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라고 답한 경우가 직업적 가치나, 주변의 권유 혹은 성적에 맞추어 온 대상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의 의미는 전공에서 간호학과와 의학과 다른 학과에 비해, 성적에 맞추어 온 대상자보다는 적성과 흥미에 의해 학과를 지원한 대상자가 높게 나타났다. 진로태도성숙도는 전공에서 간호학과가 임상병리학과와 의학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의학과가 간호학이나 치위생학과에 비해, 1학년이 2학년에 비해, 지난학기 성적이 '상'인 대상자가 '하'인 대상자에 비해, 학과지원동기가 직업적 가치보다는 적성이나 흥미에 의한 경우가, 가정형편은 '상'인 경우가 '하'라고 답한 대상자에 비해, 아르바이트 형태는 전혀 하지 않는 대상자가 학기 중에도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상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주요 변수인 소명의식, 일의 의미, 진로태도성숙도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소명의식과 일의 의미와 대학생활적응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의 의미와는 소명의식, 진로태도성숙도 및 대학생활적응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진로태도성숙도는 일의 의미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대학생활적응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즉 대학생활적응은 소명의식, 일의 의미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진로태도성숙도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표 2.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N=261)

변수	소명의식	일의 의미	진로태도성숙도	대학생활적응
	r(p)	r(p)	r(p)	r(p)
소명의식	1			
일의 의미	.60 ($<.001$)	1		
진로태도성숙도	.10(.101)	.25 ($<.001$)	1	
대학생활적응	.42 ($<.001$)	.40 ($<.001$)	-.25 ($<.001$)	1

IV. 결론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소명의식, 일의 의미, 진로태도성숙도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적으로도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높은 윤리적 수준을 요구받는 직업을 가지게 될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소명의식과 일의 의미는 매우 높은 관련성을 가지며 소명의식과 일의 의미는 그들의 대학생활적응에도 매우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직업선택의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및 독립성과 같은 하위 영역을 포함하는 진로태도성숙도와 대학생활적응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반복 연구를 통해 보다 심층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 문헌 ■

- [1] 이종찬, 홍아정,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고용가능성에 차이와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 HRD연구, 제15권 제3호, pp. 215-245, 2003.
- [2] 향매향, 조효진, 조윤진, 방지원, “대학생의 일의 의미와 진로 결정과정에서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구심리학회지: 일반, 제32권 제3호, pp. 675-699, 2013.
- [3] 심예린, “한국판 소명척도 타당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4] 박주현, “대학생의 소명과 진로태도성숙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일희망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